

순천시 팔마문화제,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문화유산야행과 복융합 축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 5만8000여명 방문 상권 활성화 "순천 저력 보여준 시민들 감사"

순천 팔마문화제가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원도심 일원에서 '팔마야(八馬夜) 청하야(淸夏夜)-팔마의 밤 맑고 푸른 여름밤'을 주제로 열린 '제41회 순천팔마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따로 열렸던 문화유산야행 행사와 함께 개최됐다. 팔마 문화제에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야행을 통해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 및 문화유산

적 가치를 함께 보여줬다.

이번 복융합된 축제에는 5만8000여 명의 시민과 관람객들이 방문해 원도심 곳곳에서 축제를 즐겼으며 그 온기는 지역 상권 곳곳에 퍼졌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은 팔마문화제는 청림의 상징 최석 부사의 '팔마정신'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순천 대표 문화제이다. 특히 올해에는 '청림'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문화 콘텐츠들이 눈에 띄었다.

기념식은 취타대 행진으로 시작해 첨단 기술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VR드로잉 퍼포먼스로 마무리하여, 기존의 틀을 깨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 연출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의 과학 콘서트, 인플루언서 서이브의 탕후루챌린지, 가수 민경훈의

축하공연 등을 통해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시민,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약 200여 명이 모여 관람객과 함께 원도심에 활기의 빛이 지속되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한지등과 랜턴을 들고 팔마비에서 서문안내소까지 행진했다. 무더운 날씨 속 4일간의 행사를 함께한 노고를 서로 격려하며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인근 상가에서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활기를 되찾았다"며 "앞으로도 원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더 발전하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일간의 행사 기간 중 3일이나 행사장을 방문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마지막 날 행사장에서 "지역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공무원, 시장의 삼합이 잘 맞아야 한다"며 "지나해 정월박람회 이어 또다시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임을 스스로 보여준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에 열린 문화유산야행은 기존 팔마비-순천향교 구간에서 진행되던 것을 매산동 일원까지 확장하고, 선현들이 남긴 전통문화유산과 100년 전 선교사들이 남긴 근대 의료, 교육, 선교유산의 가치를 인문학과 함께 풀어냈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환경공무직 안전을 위한 '저상형 청소차' 3대 도입

보성군은 20일 환경공무직의 작업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3대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성군에서 운행 중인 저상형 차량은 쓰레기 수거 1대, 음식물쓰레기 수거 1대 총 2대다. 이번 청소차 도입으로 총 5대를 운행해 환경공무직의 작업 안전 사고 예방과 근무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소차는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 별도 탑승 공간이 없고 탑승 시 높은 발판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위험과 쓰레기 수거를 위한 승·하차 시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는 운전석과 폐기물 적재함 사이에 별도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거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청소 차량 주변을 360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 작업자 승·하차 확인용 카메라, 유압 안전장치 등을 갖춰 환경공무직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민섭 기자

'쌍둥이 안심보험 무료지원' 광양시, 시민 의견 수렴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텁게 보장하는 특별한 복지체계,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의 연내 완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광양시가 이번에 또 다른 신규 복지정책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광양시는 '다태아(쌍둥이) 안심보험 무료지원' 정책을 공개하고 신규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오는 9월 20일까지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출산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시술로 인한 다태아 출생률, 저체중아(2.5kg 미만) 및 미숙아(37주 미만)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전국 통계에 따르면 다태아 출생률은 2020년 4.9%, 2021년 5.4%, 2022년 5.8%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2022년 다태아 출생아 중 저체중아는 59.5%, 미숙아는 67.7%로 집계됐다.

광양시는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등 출생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커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 신규 태아기 복지정책인 '다태아(쌍둥이) 안심보험 무료지원'을 선보이게 됐다.

'다태아(쌍둥이) 안심보험'은 광양시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 가정으로 자녀 출생 일로부터 3년간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수술비 등을 다양하게 보장한다.

지원 기간에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다태아 가정의 경우에도 광양시로 전입 시 자동 가입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광양시에 거주하던 다태아 가정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다태아(쌍둥이) 안심보험 무료지원' 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0일까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시민참여-신규정책 디자인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농촌 왕진버스' 추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고흥군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20일 녹동농협에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과 협력하여 의료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 3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농작업 질환 진료, 한방진료, 검안 검사, 돋보기 처방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녹동농협에서 자체 검진 항목을 추가하고 고흥종합병원과 협력하여 양방 진료(영양제 등)도 함께 시행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에게 호평받았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의료서비스 수요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협·병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고흥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고흥군-LH, 사용 협약체결

고흥군은 지난 19일 군수 집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공영민 군수, 신상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 사업부장 등 11명이 참석해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에 고흥시니어클럽 및 실버 카페(주민복지와 소관),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인구정책실 소관)를 이전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은 어린이집 용도로 설계됐으나,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제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입주 개시 후 4년간 공실로 유지됐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24.4.9.)에 따라 입주 주민 동의 및 고흥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흥군에서는 지난 6월부터 주민 공동시설에 기존 좁고 노후화된 시설에서 운영 중인 고흥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이전 설치하기 위해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73.5%)를 받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번 협약을 끌어냈다.

송민섭 기자



장흥군이 억불산 산림욕장에 맨발로 걸으며 산책할 수 있는 황톳길을 만들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억불산 산림욕장 황톳길 '맨발걷기' 인기

장흥군이 억불산 산림욕장에 맨발로 걸으며 산책할 수 있는 황톳길을 만들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억불산 산림욕장 산책로는 총 1.2km, 폭 1.5m 규모의 황톳길로 조성되어 있다.

황톳길은 편백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피톤치드와 함께 하는 산림욕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황톳길 맨발걷기는 이용객들에게 최고의 휴식과 건강함을 선물한다.

맨발걷기는 말초신경이 자극돼 신체 곳곳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신체정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힐링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민원 현장 방문 '찾아가는 현장 소통'

"행복 지수 높은 도시 만들 것"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19일 '제2차 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민원장소를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행정을 펼쳤다.

이날 정인화 시장은 △(구)전매청 건물 주변 지역 정비 건의 현장 △봉강·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 2개소를 방문했다.

첫 번째 일정으로는 (구)전매청 건물 관리 및 활용 건의 민원과 관련해 현장을 찾았다. 건물 면적 및 관리청 등 관리 현황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정 시장은 성북마을 이장 등 동행한 시민들과 안전관리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건물 및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숙고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해당 건물 및 대지가 장기간 방치돼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정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당 건물을 철거하거나 시에 소유권



을 이양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을 시사했다.

'제 2차 현장 소통의 날' 두 번째 일정은 봉강·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현장이다. 해당 현장은 현재 노후 마을하수처리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여 주거환경과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현장을 방문한 정 시장은 마을별 관로 설치 현황 및 계획과 상수도 공사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자체적으로 하

수를 처리 중인 옥룡 햇살학교, 정화조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마을 외진 곳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해당 지역을 또한 사업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하수 방류로 인한 수어댐의 녹조현상 방지 등 수질 관리를 위해 사전 검토 보고 후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함안물류고등학교 하수관로 배수 불량 확인을 지시한 '7월 감동데이' 현장 방문 건과 관련해, 관련 부서로부터 가로수 뿌리가 하수관을 침범했음을 보고받은 정인화 시장은 해당 가로수가 하수관을 침범치 못하도록 학교와 상의 후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정의 미래이자 나침반인 시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겠다"며 "시민 행복 지수가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힘차게 달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